

# 영광군, 대마산업단지 문화센터 시범운영 개시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편의시설 확충 열린카페·체력단련실 생활체육 공간 인문교양·문화예술 맞춤 교육 프로그램 내달까지 개선 필요사항 파악·보완

영광군이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대마산업단지 내 위치한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54억원(국비 28억원·도비 9억원·군비 17억원)이 투입돼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어진 시설로 지난 7월 BF 본인증을 마치고 센터 운영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내부 공간을 정비해왔다.

지상 2층의 연면적 1611㎡(약480평) 규모로 지어진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휴게실과 열린카페, 역량강화실 및 작은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쉼터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목적강당과 체력단련실 등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다. 복합문화센터 1층에는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근로자휴게실(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사무실, 열린카페, 회의실, 동아리방이 들어선다. 2층은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다목적강당, 체력단련실, 역량강화실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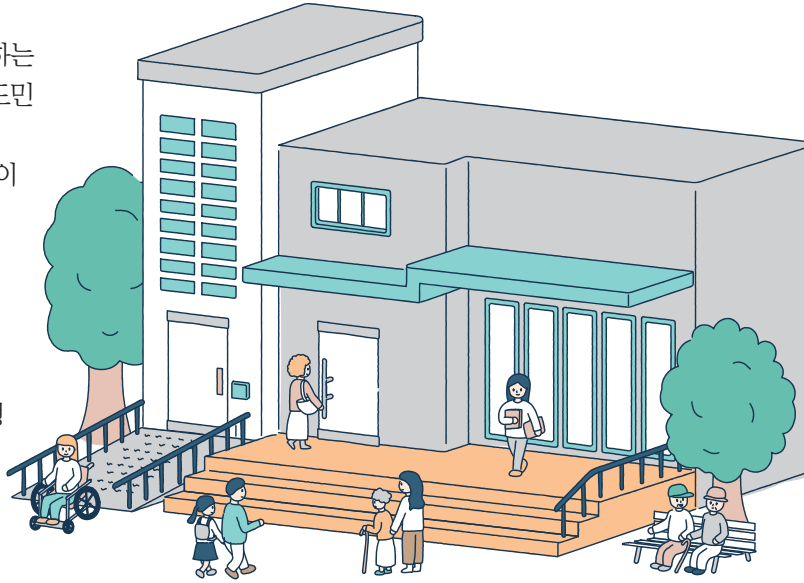
다목적강당에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강연의 개최가 가능하며 배드민턴과 탁구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체력단련실에는 런닝머신, 싸이클, 스미스머신 등의 운동기구를 통해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역량강화실에서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근로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군은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및 운영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한

뒤 오는 2월부터 센터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산업단지의 근로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합문화센터 활성화로 대마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차단 총력 함평군, 축협 공동방제단 협력

함평군이 겨울철 철새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12월부터 1월 사이 겨울 철새 유입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러스가 가금농가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주요 국도변에 대한 소독을 축협 공동방제단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장 인근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가금농가에는 매일 소독을 독려하고 철새 유입 방지 대책을 SMS로 홍보하고 있다.

중오리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고위험 농장 4곳에는 농가 초소를 운영해 차량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진행 중이다.

임단규 부군수는 “악성 가축전염병은 농가뿐 아니라 지역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빈틈없는 소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질병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비상방역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 도암면 이장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화순군,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화순군은 지난달 27일 도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및 이장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뇌혈관 질환 또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계절을 맞아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급성 심정지는 예측이 어렵고 주로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익혀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시 반남면 관계자들이 최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를 찾아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 전남체전 성화 봉송 아이디어 공모 장성군, 13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2025년 전남체전·전남장애인의 성공개최 기원과 불거리 제공을 위한 ‘성화 봉송 아이디어’를 13일까지 공모한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공모는 장성군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성군 전남체전 담당자에게 우편,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장성군 특색 반영 △기존 성화 봉송과 차별화된 독창성 △아이디어 주목성 및 파급효과 △아이디어 완성도 및 구체성 등이다.

군은 총 41건을 선정해 최우수상 1건 50만원, 우수상 5건 각 30만원, 장려상 15건 각 10만원, 노력상 20건 각 5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1·2차 평가를 거쳐 12월 중 발표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남체전 개최식 하루 전인 2025년 4월 17일부터 대회 당일까지 진행되는 성화 봉송 행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 나주시 반남면, 소외이웃 주거환경 개선

나주시 반남면(면장 이재관)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를 방문해 대대적인 소독과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대상 가구는 최근 암 수술을 한 고령의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로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벽지와 장판은 훼손되고 화장실은 곰팡이와 악취로 가득 찬 상태였다.

이에 반남면 맞춤형복지팀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의 협조를 받아 긴급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나섰다. 곰팡

이와 악취를 제거하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식기류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힘썼다.

이재관 면장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영광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2종 품목·1인당 최대 3대 신청

영광군은 저소득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해 일상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1인당 연간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품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사람,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아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을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품목은 △육상장애방석 및 매트리스 △기립훈련기 △보행차 △목욕의자 △전동침대 △이동변기 △소변수집장치 △장애인용 유모차 △장애인용 카시트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경사

로 △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등 총 42종의 품목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종합조사와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받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함평군, 2025년 3월까지

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가 단속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함평군 차량도 광주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